

어린이날 특집 '요즘 아이들' ① 사고방식 - '부모의 권위'는 옛날 얘기

합리적 이유 없으면 통하지 않는 첨단 신세대

'나의 만족'이 최우선, '남 보기에' 개념 사라져

요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첫 번째 어려움으로 꼽는다. 엄청난 세대 차이가 가족간의 공감대를 끊어버린 상황은 부모와 자녀가 진정한 삶의 공동체의 유대를 이루는 데 거대한 장애물로 서 있다.

가족이 소중한 인간관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지에서는 세대간의 단절을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요즘 아이들' 기획을 연재한다. 컴퓨터와 대중문화 속에서 어른들을 배제시키며 자기들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편집자 주)

요즘 아이들은 "왜?"라는 어른들의 질문에 넋두리를 내고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남 보기에' 그럴 듯 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아온 것이 기성세대라면 남의 눈 보다는 자기만족에 최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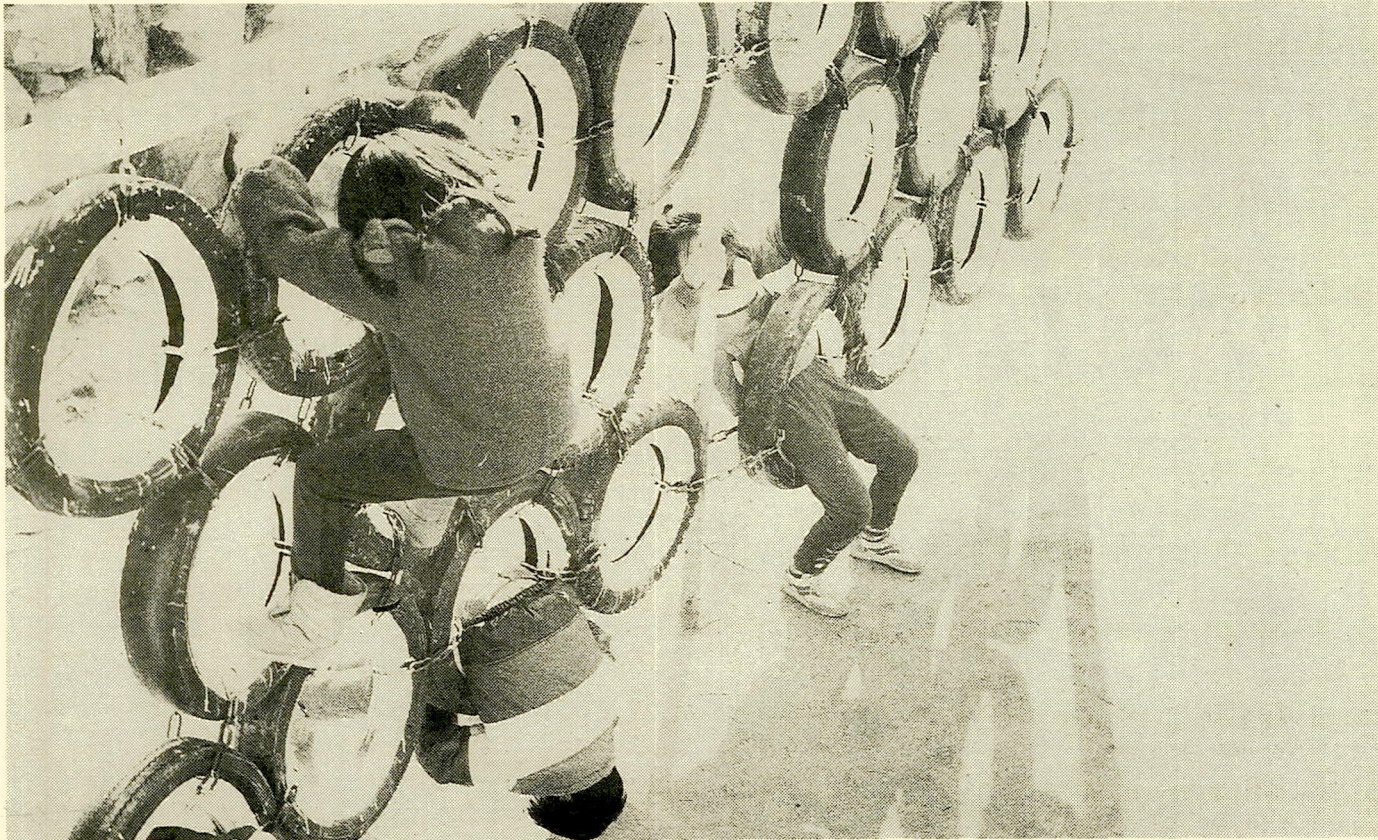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면 소리지르고 싶어서 환호성을 올리고 발을 구르는 아이들에게 "뭐가 왜 좋아서 그러느냐?"는 어른들의 물음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이유가 있다면 '재미있고 신난다' 정도가 될까? 그 이상의 '이유'를 끌어낸다는 것은 요즘 아이들의 감성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일이다.

부모세대가 기성전결의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 시대를 살았다면 요즘 아이들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장면을 모자이크해놓은 '광고영상'의 시대를 산다. 논리적 연결을 파괴함으로써 엉뚱한 논리구조를 갖는 유모어들을 즐기며, 단말마에 가까운 단어 몇 개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요즘 아이들이다. "웬..." 하는 식의 유행어부터 최불암 시리즈, TV 코미디 프로의 엉뚱한 대사들은 기성의 사고방식으로 전혀 '웃음'으로 성립되지 않는 상징들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감성세계는 그 파편적인 상징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웃고 즐긴다.

요즘 아이들과의 교감을 원한다면 왜, 무엇이 등 6하 원칙으로 이어지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빠져나와 즉흥적인 감각훈련을 해줄 필요가 있다.

남보기에 그럴듯한 이유가 중요치 않은 아이들에게 "...해야만 한다"는 말 또한 우스운 사고방식에 해당한다. 명분이나 강요로 움직이지 않는 세대는 자기 자신의 손익계산에 민감하다. 무엇이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나?'라는 질문에 답이 나올 수 있어야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아이들은 이기적이라고



현재의 20대를 신세대라 부른다면 10대의 '요즘 아이들'은 첨단 신세대로 등장 중이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상황과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사고방식에 친숙해지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아치거나 버릇없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이들과의 대화통로를 마련하는 데에 부작용만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치부해서는 안 될 복잡한 면면이 있다.

국민학교 6학년 여학생이 지나가는 길에 만난 걸인에게 돈을 주었다. 이유를 묻는 엄마에게 "그냥 가만 하루종일 내 마음이 찢찢하잖아"라고 대답했다.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그 여학생이 자기와는 무관한 걸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사소한 일로 마음쓰고 싶지 않겠다는 일종의 상관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의 엄마는 "어쩌면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없는 짓을 했다는 말이니?"라며 다그쳤다. 순간 이 여학생은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단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을 뿐인데 자기를 '아주 고약한' 아이로 바라보는 엄마와 더 이상 아무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강호진(국교 5년) 양은 한달 1만5천원의 용돈을 쓴다. 학용품이나 옷가지는 부모가 사주지만 그 외의 것은 용돈으로 해결한다. 대신 그 어떤 물건을 사건간에 그건 전적으로 강 양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찢어진 청바지' 사건으로 강 양은 어마어마하게 당했다.

강 양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들이 입고 나오는 찢어진 청바지가 몹시 입고 싶었다.

그래서 그간 모아둔 용돈으로 찢어진 청바지를 샀다. 엉덩이 부분과 무릎부분이 찢어진 것이었다. 그 옷을 입으려면 속옷이 보이게 때문에 팬티를 입으면 안된다.

강 양이 엄마와 부딪힌 부분은 바로 여기다. 찢어진 청바지를 사는 것도 못마땅한데 속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니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직 네 나이에 입는 옷이 아니니 다음에 입어라"고 말했다. "옷 입는데 왜 나이가 문제되느냐?"는 딸의 물음에 학생의 품위 운운하며 얘기하다 심분 양보해서 "그럼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 또한 강 양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팬티를 입으면 바지 밖으로 살짝살짝 보이는데 어떻게 입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강 양의 며칠 동안의 침묵 시위에 지고말았지만 한동안 강 양의 엄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다. 뭔가를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이 사건은 너무 심하게 끝났다. 강 양이 스스로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팬티를 입지 않으니까 찢찢하고 밧이 아파."

여기에서 강 양의 엄마는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를 알게 되었다.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 조금이라도 아귀가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우습네'라는 조롱을 받게 된다. 철저하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권위를 행사하는 교육방법은 백해무익한 것은 분명하다. 자아와 감성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강요란 무의미하다.

친구란 정기적으로 얼굴 대하는 사람

왜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아이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방정리 해라', '발 씻어라', '숙제해라' 류의 단순 반복적인 말들에 아이들은 고개를 흔든다. 아직 방정소 안해도 되는데, 더럽지도 않은 발인데, 숙제 안해가면 내가 혼나는데 왜 엄마가 안달하느냐라고 따진다.

친구와는 사이 좋게 지내야 하고, 오락실에 가지 말고, 비디오 보지 말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식사는 제때에 해야 한다는 식의 "...해야한다"는 부모들의 당연한 요구에도 고개를 흔든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낸다.

공부에 욕심이 많은 아이에게는 오락실에 자주 출입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해줘야 하고, 키가 작은 아이에게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만' 이유를 제시하며 '해야한다'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른만이 그들과 교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인간관계 속에서 감성을 배워왔다. 어른들한테 혼나면서 친구들과 싸우면서 동생을 보살피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을 배웠다. 모두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체험한 부분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자란다.

또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없다. 학교 다녀와서 피아노 학원, 속셈학원 등의 과외 수업으로 주말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친구라고 부를 만한 친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원에 가서 만나는 아이가 있으면 그게 친구다. 마음 터놓고 서로 얘기하는 친구라기 보다 그저 얼굴을 정기적으로 본다는 것이 친구의 개념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며 정을 나누는 대화법이 그들에게는 시간낭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김동화(국교 6년) 양의 교제 시간은 하루 전화 두세통이 전부다. 5학년때의 짝궁하고 통화하고 옆자리 친구하고 통화한다. 현재 짝궁하고도 통화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지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화로 방안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다.

컴퓨터 오락을 같이하며 "너는 지금 몇 단계하느냐?"

귀찮게 만나서 오락실 가서 돈 쓰며 부모에게 잔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얘기다. 그런식의 만남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양은 "삭막한 것이 뭐냐?"고 물었다. '정이 없고 기계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자 "우리들은 그게 정 있는 건데"라며 웃었다.

아이들은 그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고유의 정서라고 생각해 왔던 한, 섬섬함, 정, 어질음 같은 감정이 요즘 아이들 세대에 가서는 상당히 희석된 것은 분명하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최준미 양(국교 6년생)은 며칠전 초경을 했다. 최 양의 엄마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지금보다 얹전해야 한다"고 점잖게 조언했다. "그럼 생리하는 여자는 다 얹전해야해? 엄마는 생리 안하나 보네, 얹전하지 않잖아?" 생각지도 않은 반격을 받은 최 양의 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먹는데 무슨 정을 따져요?"

"엄마가 왜 얹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니? 엄마 정도라면 얹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섬섬하다", "섬섬해? 이상하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뿐인데" 이 모녀의 대화는 여기서 중단됐다.

요즘 아이들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권하는 법이 없이 먼저 자기 입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정없이 그게 무슨 것이니?'라고 물으면 '먹는데 무슨 정을 따지냐'고 되묻는다. 궁핍한 시절을 보낸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충분히 주어진 세대들에게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은 '내숭떠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월간 만화책 한 권을 빌려줘도 돈을 받고 빌려준다. 내가 5백원 여치 떡볶이를 사면, 친구도 5백원여치 떡볶이를 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예의 없는' 아이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계산속을 '인정머리 없다'고 표현하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는 부분을 왜 문제시하느냐는 것이다.

현재의 20대를 신세대라 부른다면 10대의 '요즘 아이들'은 첨단 신세대로 등장 중이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사고방식에 친숙해지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